

「金氏烈行錄」研究

李 政 殷

〈目 次〉

- | | |
|--------------------------|--------------------------|
| I. 序 論 | 2.2. 中介의 人物의 消滅과
新人間型 |
| II. 「金氏烈行錄」의 分析 | 3. 價値觀 |
| 1. 展開構造 | 3.1. 垂直的 秩序와
虛構的 倫理觀 |
| 1.1. 插話의 受容과 再構成 | III. 「金氏烈行錄」의
創作時期考察 |
| 1.2. 原型構造의 崩壞 및
劇的 構成 | IV. 結 論 |
| 2. 人 物 | |
| 2.1. 二元的 人物構成 | |

I. 序 論

文學研究에서 評價를 내려야 할 때, 우선적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性格을 精密하게 分析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既存의 研究에서 왕왕 찾아 볼 수 있다. 研究對象의 正確한 價値評價는 文學史記述의 先行條件이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소홀히 취급 될 수 없다.

本考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어서 舊活字本 古典小說中에서 研究者에 따라 相反된 視覺의 差異를 보여 주는 「金氏烈行錄」을 研究의 對象으로 삼아 論議를 펴고자 한다.

대개의 舊活字本 小說과 달리 이 작품은 落長으로 인해 出版年代와 作者를 알 수 없다. 단지, 李海朝가 지은 新小說 「九疑山」과 많은 類似點을 가지고 있고 1920年代 舊活字로 인쇄된 점만¹⁾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1) 「金氏烈行錄」의 첫번째 사건과 「九疑山」의 上卷은 人物, 事件, 構造 등 전반에서 거의 同一한 면모를 보여주며, 이 후로는 각기 독자적인 사건전개를 보여

작품에 대해서는 金起東의 概說的인 紹介 정도의 研究²⁾와 文學史的 連續性을 窺明하고자 했던 金明植의 研究³⁾가 있다.

金起東은 이 작품을 플롯 위주로 說明⁴⁾하면서 다른 古典小說에서는 볼 수 없는 獨創的인 內容때문에 이 작품이 비로소 模倣이 아닌 ‘獨創的인 古典小說’이 된다고 했다. 金明植은 「金氏烈行錄」이 繼母型 小說에 속하는 ‘典型的인 古典小說’이라고 먼저 단정을 내린 다음, 그 위에서 事件, 人物, 背景 등등의 關係를 중심으로 「九疑山」과 比較한 다음 이 작품이 古典小說이 新小說로 移行하는 傳統的인 繼承關係를 보여 주는 例라고 結論지었다.

이상 兩人의 論議는 일견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상당히 問題點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兩者의 論議는 이 작품이 古典小說이라는 점에서는 一致를 보이고 있지만, ‘獨創的’, ‘典型的’이라 한 점에서는 各者 相反된 結論을 내렸는데, 그 理由는 兩者 모두 치밀한 작품분석을 행하지 않고 먼저 세운 假說에만 맞추려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金氏烈行錄」은 한편으로는 ‘家庭小說’, 특히 그 중에서도 繼母型小說의 작품군들이 지닌 속성을 共有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포괄적인 범주인, 곧 英祖朝를 分岐點으로 해서 二大別 내지는 三大別되는 古典小說群들과 기묘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金氏烈行錄」의 性格은 이러한 類型을 다룬 既存의 研究成果를 가지고 比較, 檢討할 때 좀 더 明確히 드러날 것이다. 本考는 따라서 이러한 方式으로 이 작품을 검토하고자 하며, 「九疑山」의 研究成果도 필요에 의해 같이 살피고자 한다. 이 分析의 結果를 토대로 해서 「金氏烈行錄」의 創作時期를 파악한 다음, 이러한 연구에서 도출된 것을 가지고 이 작품의 文學史的 位置를 밝히고자 한다.

준다.

2) 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 敎學研究社, 1985, pp. 615~617 참조.

3) 金明植, 「金氏烈行錄」과 「九疑山」, 「韓國文學研究」 제 8 집, 東國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85.

4) 金起東은 「金氏烈行錄」을 플롯위주로 考察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줄거리를 중심으로 說明하고 있어 用語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서는 論者의 用語대로 플롯으로 쓰나 줄거리를 意味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II. 「金氏烈行錄」의 分析

1. 展開構造

1.1. 挿話의 受容 및 再構成

「金氏烈行錄」의 分析에 앞서 줄거리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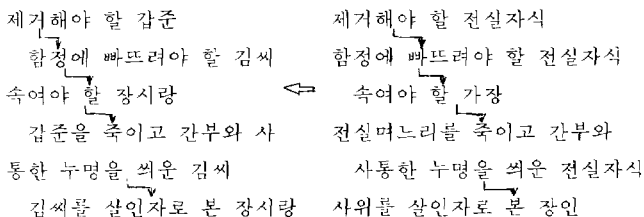
- 1) 장계현이라는 부유한 가문의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언씨와 결혼하여 갑준이라는 아들을 얻지만 아들이 십세가 되던 해에 언씨와 사별한다.
- 2) 장시랑은 명문의 규수인 유씨와 재혼하지만 갑준이 자기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해를 입힐까 봐 걱정한다. 유씨가 병준을 낳고 장시랑 내외는 사이는 좋지만 점점 서로를 의심한다.
- 3) 갑준이 장가 든 첫 날 밤에 목이 잘려 죽자, 신부인 김씨가 외간 남자와 사통하여 남편을 죽였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 4) 김씨는 남장을 하고서 시모인 유씨가 살해범임을 밝혀 낸다. 사실을 알게 된 장시랑은 유씨모자를 불에 태워 죽이고 모든 것을 김씨에게 맡긴 다음 가출한다.
- 5) 김씨는 유복자인 해룡을 낳는다.
- 6) 김씨는 다시 남장을 하고 시비 옥매와 함께 시부를 찾아 전국을 헤매며 술한 위기를 겪는다.
- 7) 김씨는 중이 된 시부를 모셔 오고 치산에 힘써 가문을 재건한다.
- 8) 김씨는 홀로 된 시부를 위해 어릴 적 자기의 친구로 과부가 된 화씨를 시부의 첩으로 들인다.
- 9) 장시랑이 김씨하고만 집안일을 의논하고, 또 첩이라는 신분적인 제약 때문에 집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화씨는 죽은 유씨의 동생인 유태수와 공모하여 김씨가 갑준을 죽인 것처럼 모해한다. 장시랑은 화씨의 세력에 빠져 다시 김씨를 의심하게 된다.
- 10) 화씨의 악행에 분노를 느낀 옥매는 화씨를 독살하고자 하나, 엉뚱하게 장시랑이 약을 마시고 죽게 된다.
- 11) 김씨와 함께 옥매는 사실을 고하고자 하나 화씨와 유태수는 사실이 드러날까 하여 김씨만을 문초한다. 옥매는 간사장을 매수하고 탈출하여 황제에게 사실을 고한다. 황제는 화씨를 처형하고 유태수를 파직시킨다.

- 12) 황제는 공주를 해룡과 결혼시키고, 옥매에게 충비정녀문을 세워준다. 김 씨모자는 영화를 누리다가 죽는다.

위에서 이 작품이 時間的 順序대로 敍述되었고, 惡人謀害라는 古典小說에서 흔한 構造를 답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내용상 1)~7)까지와 8)~12)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金起東이 말한 獨創의 要素란 3)~10)까지 안데, 과연 이것이 獨創의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9)는 3)과 謀害라는 점에서 共通되는데, 人物들이 共謀하는 사실정도만을 가지고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은 無理가 있다. 3)이 특히 注目을 받은 것인데, 이를 다른 古典小說의 實例를 통해 보기로 한다.

家庭小說에서 謀害⁵⁾는 多樣한 樣相을 보여 주는데, 加害者가 除去해야 할 人物을 모해해서 바로 제거하려 할 때는 前室子息이 落胎한 것처럼 꾸미거나(「薔花紅蓮傳」, 「金仁香傳」, 「黃月仙傳」), 姦夫와 私通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鄭乙善傳」)가 있고, 또 養子며느리가 외간남자와 私通하여 애를 낳은 것처럼 꾸미는 경우(「嚴氏孝門清行錄」)가 있고, 이와는 달리 좀더 교묘하게 우회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때에는 前室子息이 며느리를 죽인 것처럼 꾸며서 그 장인으로 하여금 전실자식을 제거케 하는 경우(「華山寄峯」)가 있으며, 이 외에도 謀害方式은 다양하다.



좌측은 「金氏烈行錄」을, 우측은 앞서 본 예들 중 좌측과 相應하는 것을 뽑아 배열한 것으로 브레몽의 도식을 조금 변용한 것⁶⁾이다. 우측의 人物의 명칭만 바꾸면 좌측의 도식과 同一해져, 「金氏烈行錄」의 謀害는 獨創

5) 金起東은 家庭小說을 두고 다시 二分하여 繼母와 前室子息間的 葛藤을 그린 作品을 두고 繼母型 小說이라 하고, 또 妻妾間的 葛藤을 그린 作品을 두고는 '爭寵型 小說'이라 했다. 여기서 「金氏烈行錄」은 前者의 범주에 드는 作品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는 例단을 취했다. 金起東 前掲書, p. 506 참조.

6) Claude Bremond, 「說話可能性의 論理」, 崔縉圭譯, 「現代小說의 理論」, 大邦出版社, 1983, p. 149.

的인 것이 아니라 既存의 것을 混合해서 變用, 再構成한 것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謀害는 감준을 刺殺함으로써 가능한 데, 다른 古典小說에서 殺害가 失敗로 끝나는데 反해 좀 더 열기적이고 잔혹한 방식으로 實現된다는 점에 問題가 있다. 金起東이 독창적이라고 본 것도 실은 이 점을 염두에 둔 듯 하다.

‘밤은 명랑하고 달은 서천에 걸었는디
수면니고 요한지라 홀연 일지 팔척장신니 칼을
삼고 신방에 다라 드러 문을 켜치고 신랑의 머리를 버혀가지고 부지거쳐라’⁷⁾

‘사든집 너명을 너외홀 여부업시 겹겹이 도라선 사들을 잡아헛치고 방안을 드러다보니 바린니가 코에와라 나눈디
그 아들이 머리는 잔꽃업고 다만 엇기이
하 몸덩이만 그가온디가 느러졌고 그것해 삼척 비슈가 노여있더라’⁸⁾

「九疑山」(2)의 장면이 「金氏烈行錄」(1)의 그것에 비해 좀 더 자세할 뿐 怪奇스럽기는 양자가 다름 없다. 2)는 新派文學의 한 면을 보여 주는데⁹⁾, 金起東이 독창적이라 한 1)은 독창적이지는 않으나 2)와 유사해 거기 다른 古典小說과 비교해서 區分되어야 할 점임을 지적한 것은 수긍할 만하다.

다음으로 4)와 8), 10)은 個別的인 挿話로 이를 두고 독창적인 것이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나 全體의인 脈絡에서 본다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도 있다. 4)와 같이 가장이 집안 문제로 가출하는 예는 「魚龍傳」에서 볼 수 있고, 侍婢가 주인의 繼母의 악독함을 보고 毒殺하고자 하는 예는 흔한 데, 그것은 失敗로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예는 「黃月仙傳」에서 찾을 수 있다. 4), 10)과 같은 것은 古典小說에서 단지 實現되지 않고 기도만을 보여 주던 것을 잔혹하게 實際化시킨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部分的인 變化이긴 하지만, 이 작품을 종래의 古典小說과 달리 볼 수 있게 하는 要素가 될 수 있다. 이 점은 人物들의 行爲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8)은 살인사건이 일단락됨으로써 더 이상 작품을 끌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事件을 導入시켜 주는 계기

※1. 「金氏烈行錄」, 活字本 古典小說(Ⅱ), 東國大 韓國文化研究所, 亞細亞文化社, 1979, p. 5.

※2. 李海朝, 「九疑山」, 韓國開化期文學叢書(Ⅰ), 新小說, 鱸案(譯)小說 卷九, 亞細亞文化社, 1978, p. 58. 앞으로 原文을 引用할 경우 작품의 머릿글자와 페이지수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7) 林和, 「概說 朝鮮新文學史」, 韓國文學史研究叢書, 第一卷, 三文社, 1982, p. 616

참조, 崔元植, 「李海朝文學研究」, 「韓國近代 小說史論」, 創作社, 1986, p. 138 참조

로서 작용하는 동시에 김씨의 烈行을 強調하는 二重의인 구실을 한다. 따라서 이것도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상 본 것처럼 金起東이 독창적이라 지적인 것들은 다른 古典小說에 나타났던 요소들을 再構成한 것이거나 그 段初만 보여주던 것들을 좀 더 怪奇스럽게 具體化시킨 것일 뿐이다. 그러한 요소들은 흔히 新派文學으로 불리는 通俗新小說의 보편적인 樣相들로서 古典小說인 이 작품이 그러한 樣相을 보여 준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요소들을 두고 독창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또 이들을 제외하고서 하지 않더라도 독창적이라 할 만한 요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1.2. 原型構造의 崩壞 및 劇의 構成

이 작품은 한 人物의 幸福과 苦難의 교차를 통한 一代記의 敘述形式을 가지고 그의 幸福한 結末에의 도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趙東一의 '貴族的 英雄의 一生' 유형⁸⁾에 속할 수 있다. 이는 李相澤의 '個人創作系 小說'과 그 대상선정에 있어 조금의 差異가 있긴 하지만⁹⁾ 거의 비슷하므로 여기서는 同一한 것으로 보고 '二元的 世界觀의 小說'로 統一해서 쓴다.

이 유형의 작품은 '英雄의 一代記'라는 構造의 原型性을 지닌다. 이것은

8) 趙東一은 民談의 構造에서 段落을 추출하고 그것을 발전시킨 결과로서 도출된 英雄의 一生을 제시하고 있다. 이 유형은 行爲의 主體, 段落間의 關係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統一性이 없으며 (拙稿, 新小說에 나타난 葛藤樣相研究, 西江大學校碩士論文, 1984, 註52, 54참조) 또 그 段落이 分析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經驗的인 것이어서 작품의 개별적인 性格을 說明하는데는 많은 難點을 가지고 있으며(F. Jameson, 윤지관 역, 「언어의 감옥」, 까치 1985, pp. 55~60 참조), 좀 더 근본적으로는 단순형태로서의 民談의 構造와 좀 더 발전된 형식인 小說의 敘事構造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에 지중한 나머지 小說의 分節을 任意的으로 행한 오류가 있지만(李在銑, 「개화기 소설연구의 현황과 방향」, 『韓國學報』, 1977, 봄, p. 26참조)이에 相應할 만한 작업이 거의 없고, 다른 研究에 비해 실제로 적용하기 쉬운 잇점이 있다.

9) 李相澤은 古典小說을 英祖朝를 중심으로 구분했는데 그 이전의 二元的 世界觀을 중심으로 지은 작품은 '個人創作系 小說'이라 했고, 그리고 이러한 世界觀에서 탈피하려는 작품으로 연암소설과 판소리계 소설을 들고, 이들을 한데 묶어 '世俗社會의 小說'로 보았다.(李相澤, 古典小說의 社會와 人間, 成賢廳外編, 『韓國古典小說研究論文選(1)』 啓明大學出版部, 1974), 趙東一은 그와는 조금 달리 판소리계 소설중에도 이 貴族的 英雄의 一生'의 특징에 속하는 것이 많다고 보아, 李相澤이 兩者를 구별하여 파악하려 한데 반해 趙東一은 兩者의 共通點에 더 관심을 두었다는 데서 차이를 보여준다. 앞으로 英祖朝 以前의 小說로 이들 兩人이 二元的 世界觀이 強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본 작품들을 '二元的 世界觀의 小說'이란 用語로 統一해서 쓴다.

‘천상계 — 인간으로의 적강 — 속세에서의 난행과 업고 — 부귀영화 — 선계 또는 천상으로의 회귀¹⁰⁾’라는 전개형식을 취하고 있다. 「金氏烈行錄」 역시 一代記的 構造와 주인공의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는 점에서 이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서서히 構造의 변모가 일어나고 있음이 눈에 띈다.

「金氏烈行錄」에서 주인공은 김씨이지만, 김씨에 대한 서술은 그녀가 장성하여 갑준과 결혼하는 때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그것도 ‘거가티족으로가 새가야부족야구양이절등한’(「金」, p. 5) 집안 출신인 점만 제시될 뿐, 인물 서술에 관습적으로 도입되는 주인공의 용모, 성품이나 집안의 자세한 내력은 전혀 서술되지 않는다. 대신 그에 비해 嫗家人物들의 內歷은 2대에 걸쳐 비교적 자세한 서술된다. 하지만, 그것도 ‘늬도록<녀를두지못<야근심한 더니늬게야아오가일<물나흐니’(「金」, p. 3)라든지 ‘홀런티고잇셔십삭만에일기우동을실한주’(「金」, p. 4)이라 하여 慣習的 敘述形式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으나, 거기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요소들은 完全히 排除되고 있다. 곧 주인공의 탄생에 늬은 부모가 자식을 얻으려는 祈子精誠, 죄를 지은 仙人이 人間으로 내려오는 주인공의 適降¹¹⁾모티브가 그것이다. 이처럼 인물 탄생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배제되고 다만 관습적인 서술형식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金氏烈行錄」의 특징인데, 또 그러한 점들이 정작 주인공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특이하다.

「金氏烈行錄」은 발단부에서부터 일대기적인 구조가 파괴되는 동시에 결말부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여 준다. 즉 일대기적 구조는 보통 적강한 주인공이 지상에서 富貴榮華를 누리고 다시 天上으로 귀환하는 순환적인 형식을 취하는 反面에 이 작품은 주인공의 自然死라는 線的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發端部와 結末部의 ‘天上界—人間으로의 適降’, ‘仙界 또는 天上으로의 回歸’라는 요소가 脫落되고 ‘俗世에서의 難行과 業苦’, ‘富貴榮華’라는 現實世界에만 敘事が 限定되고 있다. 따라서 一代記的 構造는 차츰 崩壞되는 樣相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은 二元的 世界觀의 小說이나, 그것을 殘影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과 구별된다.

위의 사실과 함께 「金氏烈行錄」은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10) 李相澤, 「古典小說의 世俗化過程試論」, 李相澤外編,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사, 1983, p. 75.

11) 成賢慶,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참조.

작품이 순환적인 형식을 거부함으로써 二元的 世界의 造化를 피하기 보다는 現世的 次元의 問題에 관심을 두고 있듯이 비슷한 비중을 가진 사건들을 계속 전개하는 방식을 취하기 보다는 劇的이고 다소 強烈한 樣相을 보여 주고자 함이 드러난다. 이 점은 敍事의 時間配定에서 明白히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敍述의 核心은 3)~6)까지와 8)~11)까지의 두 사건에 있다. 상당한 부분이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一代記的 構造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 중 이 두 부분은 ‘敍述時間’이 敍事의 半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건대 比해 그 ‘敍述된 時間’은 각 1年씩으로 도합 2年에 지나지 않는다.¹²⁾ 반면에 이들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4代동안의 이야기를 敍述하고 있지만 실제 敍述時間이 全體의 半에 채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後者는 前者와 더불어 敍事의 比重을 고려할 때 前者에 比해 상대적으로 그 意味가 약하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이 관소리계 소설처럼 強烈한 葛藤을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二元的 世界觀의 小說의 그것에 비해서 좀 더 劇的인 效果를 노린 意圖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二元的 世界觀의 小說은 주인공의 파란만장한 一代記를 통해 天上의 意圖를 記述하고자 하기 때문에 挿話中心의이고 單軌的인 構成을 취하고 있는데¹³⁾, 이 점은 주인공이 단지 狀況 속을 通過만 할 뿐이며 그의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¹⁴⁾ 있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金氏烈行錄」은 天上의 意圖를 排除하고 現世的 次元에서 일어나는 葛藤을 보여주고자 하여 두 사건에 관심을 集中시키고 있으며, 그 두 사건도 別個의 것이 아니고 첫번째의 사건이 두번째의 사건과 結合하여 한층 深化되는 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주인공의 전생애를 통해 運命論的인 觀念을 傳達하기 보다는 事件自體에 興味를 集中시키고자 하는 意圖를 갖고 있다.

12) ‘敍述된 時間’은 곧 작품내에서 進行된 時間을 말하는 것으로서 ‘事件時間’ 혹은 ‘虛構의 時間’, ‘相對的 時間’이라고 하며, ‘敍述時間’은 곧 작품의 페이지 수 내지는 讀書에 걸리는 時間을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 時間’, ‘現實的 時間’이라고도 한다. (A. A. Mendilow, 崔翺主譯, 「時間과 小說」, 大邦出版社, 1983, pp. 81~83, 韓逸俊, 「時間關係에서 본 小說의 構造」, 『독일문학』22집, 1979, pp. 342~348 참조.)

13) 李在鎰, 「新小說의 敍述構造論試考」, 『震檀學報』, 第33號, 震檀學會, 1972, p. 108 참조.

14) 李相澤, 前揭論文, p. 77.

2. 人 物

2.1. 二元的 人物構成

古典小說 중 특히 二元的 世界觀의 小說의 다수는 善人/惡人이라는 二元的인 人物構成을 하고 있다. 모든 登場人物들은 주인공과 그의 적을 中心으로 두 범주로 나뉘는 것이 보통이다. 人物을 제시할 때는 악인일 경우 그를 '악인으로 규정하는 약간의 개념적인 설명과 아울러 몇 가지 단순한 음모를 그의 행동양상으로써 보여 주는 것이 하나의 공식'¹⁵⁾에 속한다. 「金氏烈行錄」역시 二元的 人物構成法을 택하고 있으나 종래의 方式과는 조금씩 다른 면모를 보여 준다. 惡人の 경우는 善人에 비해 좀 더 다른 古典小說의 人物型에 가깝다.

家庭小說에서 惡役을 맡고 있는 繼母는 심술이 사납고 姦惡한 위인으로써, 간혹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惡함은 그들의 타고난 性格이다. 남편이 自己所生보다 前室所生을 더 사랑한 것이 그들의 惡行의 動機로 제시되기는 하나, 이것은 그들의 선천적인 惡에 비해 意味가 弱하다. 따라서 主人公과 繼母와의 葛藤은 이들 兩者間의 타고 난 性情에 의해 미리부터 예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씨는 '식덕이검비호기로유명'(「金」, p. 4)하고 '인물이절미하며적질이민첩호야죽히거가티족의니주가될만호'(「金」, p. 4)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인물인데 남편인 장시랑이 자기가 갑준을 해칠까 봐 의심하는 데서 살인할 마음을 품게 된다.

‘민양연씨를싱각호고미로눈물을흘리며갑준의정세를도라보고극히불상한수익을잠시도못치못호니남이보기에상수롭지아니호야피이고뉴부인의싱각에는의심이호연니러나더라.(「金」, p. 5)

유씨는 모든 면에서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다. 그 원인은 전실 자식을 사이에 둔 내외간의 의심으로, 그것은 점점 커져 마침내는 '전실호제를업식고제소싱으로종가를숨으려호'(「金」, p. 7)는 데까지 발전한다. 유씨의 殺人動機는 다른 古典小說의 계모와 같은 動機이긴 하지만, 유씨를 賢淑한 婦人으로 設定함으로써 다른 작품과는 달리 現實感을 얻게 된다.

15) 鄭炳旭, '李朝末期小說의 類型的 特徵', 成賢慶外編, 前掲書, p. 150.

장시량의 첩으로 들어온 화씨 역시 ‘인물이절민하고 지혜충민’(「金」, p. 12)한 여성인데, 시집은 후 ‘시량을극히경탄하고 명분을밝혀뜻을어기지아니함’(「金」, p. 12)는 태도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하지만 장시량이 김씨하고만 집안일을 의논하고, 또 자신이 쫓긴 까닭에 ‘기가의권세를죽지못함으로분울함’(「金」, p. 12)을 품고 김씨를 해하고자 한다. 여성이 살림에 대해 안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은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동기일 수 있다. 유씨나 화씨는 타고난 성품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동기때문에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들의 性格은 물론 앞서 다룬 古典小說의 예처럼 慣習의인 敘述方法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人物에게 現實의인 動機를 부여함으로써 종래의千篇一律의인 人物構成에서 탈피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이 작품은 繼母型 小說에서 典型的인 惡人謀害의 構造를 답습하여 인물들의 活動을 제한하게 함으로써 意圖한 바를 達成하는 데 失敗했다. 곧, 이 구조는 인물성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의 행동범위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악인은 판소리계 소설이나 연암소설처럼 역동적이고 개성적인 인물형 내지는 樂善齋本 小說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물형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겠다.

2.2. 中介의 人物의 消滅과 新人間型

古典小說에서 인물들은 그 機能에 따라 몇 가지의 行爲者로 분류될 수 있다. 趙東一은 重要的 행위자를 여섯으로 나누었는데, 그 구분은 그레마스(A. J. Greimas)의 行爲項圖式을 변용한 것¹⁶⁾으로 보인다. 小說史的 展開에서 특히 注目해야 할 행위자는 ‘구출자’로서 ‘助力者’ 혹은 ‘中介의 人物’이라고도 한다.

16) 그레마스는 한 작품에서 行動者(actant), 곧 구체적인 인물은 술하게 있을 수 있지만, 行爲者(acteur), 즉 인물들이 하는 機能은 6가지로 정해질 수 있다고 논했다. 그리고 이 6가지의 行爲者는 사람이 아닌 사물, 사상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가 분류한 행위자는 주체(subject), 객체(object), 조력자(Helper), 적대자(Opponent), 발송자(Sender), 수신자(Receiver)이다. (A. J. Greimas, 「Structurale Semantic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pp. 196~221 참조) 그의 행위항 도식은 여러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용한데 일차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주체, 곧 주인공은 능동적 인물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趙東一의 인물구분은 그레마스에서 발상을 끌어 온 것처럼 보이는데 註11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주인공의 行動樣態를 의식하고 있지 않다.(趙東一, 「新小說의 文學史的 性格」, 서울대 韓國文化研究所, 1973, pp. 70~77 참조).

中介의 人物은 天上과 關連이 있는 存在로서, 주로 道僧이나 仙人, 혹은 주인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일 수 있고, 또 人間的 存在가 아닌 動物의 形態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들은 단순히 위기에 처한 주인공을 구출해 주거나 그가 취할 방향을 지시해 주는 데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을 이길 힘이 없는 주인공이 能力을 기르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樂善齋本 小說의 ‘幕後人物’도 이에 속한다. 이 인물은 주인공이 위기를 克服하도록 도와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事前에 事件의 단서를 일러 주는 프롬프터(Prompter)의 역할, 곧 敘述者로 事前敘述의 機能을 담당¹⁷⁾ 하기도 한다.

「金氏烈行錄」에서 김씨가 시부를 찾는 과정에서 꿈을 통해 啓示를 받는 예가 있으나, 이것은 별 意味를 갖지 못한다. 이 외에 中介의 人物은 消滅되고 있다. 이 점은 「金氏烈行錄」이 로맨스의 세계를 벗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사실로서 中介의 人物의 消滅은 김씨의 能動的 行爲와 관계를 맺고 있다.

被動的인 人物, 혹은 힘이 없는 인물이 주인공인 古典小說에서 주인공은 中介의인 人物의 도움으로 幸福한 結末을 획득하는데¹⁸⁾, 「金氏烈行錄」은 世界觀의 變化와 함께 中介의 人物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二元的 世界觀의 小說뿐 아니라 樂善齋本 小說보다도 形式的으로 進歩한 작품일 수 있다.

김씨는 단순히 능동적인 인물 이상의 행동을 보여 주는데, 이 점에서 「金氏烈行錄」은 로맨스적 세계를 脫被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리얼리즘적인 것과도 거리를 두게 된다. 中介의 人物이 消滅했으므로 모든 것은 김씨 자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김씨는 남자로 변장하여 돌아다니면서 남편의 살해범을 찾아내고 가출한 시부를 술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야

17) 鄭炳旭, 前揭論文, pp. 187~190 참조.

18) 民談의 始作部分에서 주어진 약한 善인과 강한 惡인의 대립은 중개적 인물의 존재로 인해 보통 結末에 가서는 善한 승리자와 惡한 패배자로 그 관계가 逆轉되는데, (金烈主外著, 「民談學概論」, 一潮閣, 1983, p. 21). 이 점은 많은 古典小說과 新小說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結末은 중개적 인물의 존재와 함께 善한 인물의 道德的 當爲性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通俗文學의 경우 잘 적용될 수 있고(A. Brooker, Thro, 'An Approach to Melodramatic Fiction', 「Genre」, Vol, number 3, Fall, 1978, University of Oklahoma, pp. 360~364 참조), 또 小說에서 이러한 인물의 존재유무는 곧 그 小說이 리얼리즘에 다가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해 주는 척도가 된다.(崔元植, 前揭論文, p. 83, p. 88, p. 136~137 참조).

찾는다. 김씨의 행동은 傳統의 女性觀에 비추어 볼 때 寫實的인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녀와 同一한 行態를 보여주는 「九疑山」의 김씨에 대해 ‘探偵小説의 私立探偵’과 같은 인물형이란 지적이 있거니와¹⁹⁾, ‘신의무죄
흥은고신랑의죽음은또한과상흔죽박혀널도리가잇고오니’(「金」, p. 6)라 하여 김씨가 누명을 벗고 원수를 갚는데 관심을 갖기 보다는 사전에 대해 일종의 호기심같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 김씨의 烈行은 살해범처리 후 극히 미미한 敘述 정도로 그치고 있다. 김씨의 행위는 장시량의 말처럼 ‘신혼녀가남북으로나서서쥬막에두류흔일도규중부녀
의행수가아니오토다시남북으로쥬류팔방흔일도여의못홀일’(「金」, p. 14)이다. 김씨는 背景부터가 英雄으로 설정된 女將軍小説의 주인공들과 달라 그녀의 행위는 ‘보통 女性으로는 不可能한 행동²⁰⁾’이다. 이같은 행동은 옥매에 이르면 極大化된다.

옥매는 김씨가 시부를 찾아 나설 때 ‘상전의효심과절형을탄복하다가한가지로다니기를원’(「金」, p. 14)했던 ‘義理의 人物’이다. 그녀는 김씨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을 보고 ‘원통하고분한마음을이딜수업서’(「金」, p. 15) 화씨를 죽여 후환을 없애고, 자신도 ‘갓치죽어분한마음을설치’(「金」, p. 15) 하고자 한다. 옥매는 단지 ‘義憤’이라는 名分만으로 살인을 시도하는데, 上典殺害라는 重罪를 저지르고도 주인에게 忠誠을 발휘했다는 명목으로 ‘죄를야통비정여문’(「金」, p. 18)을 받는다. 이것은 新派의 人物型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인데, 「九疑山」에서 新派의 人物로 규정된 칠성의 행동과 附合된다. 칠성 역시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을 亂刺해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義憤’에 의해 사람을 죽였다고 하여 겨우 ‘삼기월금옥’(「九」, p. 199)에 처해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 新派文學인 「九疑山」에서조차 살인범은 타인을 죽이고 처벌을 받는데 반해, 옥매가 상전을 살해하고도 오히려 국가적인 칭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녀가 순전한 古典小説의 人物型에 속하기 보다는 오히려 典型的인 俗文學에서나 찾아 볼 수 있는 人物型임을 말해 주는 사실이 된다.

3. 價値觀

3. 垂直的 秩序와 虛構의 倫理觀

판소리계 소설이나 樂善齋本 小説은 二元的인 世界觀을 殘影으로 가지

19) 李在鎰, 前掲書, p. 145.

20) 金起東, 前掲書, p. 617.

고 있으며, 그 세계觀과 不可分の 關係를 맺고 있는 垂直的인 倫理意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 준다. 이들 계열의 작품들은 신성성, 경건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대신에 日常的인 經驗에 기초하고 있는 世俗的인 世界를 보여 주고자 한다. 이러한 日常性, 世俗性은 強烈한 個我的 欲求의 成就와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다. 이러한 個我的 欲求는 보통 愛情의 추구 혹은 화폐시대의 경제관을 反映한 金錢에 대한 欲求, 또는 身分解放을 위한 欲求, 새로운 社會의 價値觀에 대한 追求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世俗性을 주로 한 小説은 儒敎的인 敎理의 형해를 비록 外形的으로 受容하고 있으나 內面에서는 새로 登場하는 民衆社會의 발랄한 生氣와 個人的인 人間의 苦惱나 葛藤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²¹⁾ 이는 이들 계열의 소설이 垂直的 秩序의 추구에서 水平的 倫理意識의 추구로 轉換하고자 함을 意味한다.

「金氏烈行錄」은 二元的 世界觀을 完全히 벗어 났으면서도 오히려 그러한 世界觀을 背景으로 삼은 小説이 찾는 封建的 價値觀을 옹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작품의 기반이 된 世界觀과 그것이 그리고자 하는 世界가 尠致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상당한 모순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 점은 인물간의 갈등에서 잘 확인된다.

유씨가 自己所生으로 하여금 장씨의 全權을 잡게 하고자 하고, 화씨가 장씨의 安主인이 되고자 하는 동기는 金錢的인 欲望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새로운 經濟觀의 反映으로 보기에 無理가 있다.

새로운 價値觀은 낡은 價値觀과의 첨예한 대립을 통해서 온당한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작품에서 封建的인 家父長的 相續制度나 身分制度의 모순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대신 그러한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謀害라는 지극히 非正常的이고 不正的인 手段에 의해 目的을 達成하고자 하는 陰謀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구나 結末에서 既得權을 탈취하고자 한 인물들이 目的達成에 失敗하고 죽음을 당하는 대신 家父長的 倫理가 適法한 인물로 認定하고 있는 김씨와 해룡이 결국 장씨의 주인자리를 물려 받음으로써 家父長的 秩序의 頑強함을 確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內的 形式, 世界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價値觀을 제시하지 않고 傳統的 價値觀을 옹호

21) 李相澤, 「古典小說의 社會와 人間」, 成賢慶外編, 「韓國古典小說研究論文選(1)」, 啓明大學校 出版部, 1974, p. 301.

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겠다.

「金氏烈行錄」이 重點的으로 強調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儒敎的 德目은 忠, 孝, 烈로 특히 忠과 烈에 焦點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倫理는 모순되고 기괴한 方式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씨의 烈, 孝行은 자신이 쓴 살인누명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구책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마저도 일종의 호기심같은 것이 억울함보다 더 強하게 작용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다른 研究가 지적한 것과 달리 主題라고 할 수 있는 김씨의 烈, 孝行은 유씨를 처형한 이후의 간략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김씨는 남편을 따라 죽고자 할 만큼 여자의 도리를 알고 있으며, 남편의 유품과 집안 문전을 모두 자기에게 보낸 시부의 말없는 부탁을 받들어 가문을 보전할 만큼 家門意識이 투철한 인물이다. 또 뜻하지 않았던 임신으로 해룡을 낳자 ‘로부를차<뵈시고도라와도손니상면호고녀년을맞치시게’, (「金」, p. 10)할 정도의 孝心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씨의 행적은 규중여자가 지켜야 할 범위를 넘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 또 김씨는 홀로 된 시부를 위해 첩을 들어주는 孝를 행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부를 죽게 만듦으로써 不孝를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행위들을 意味가 있는 局面이라고 평가한다 하더라도 敍事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할 때는 단지 挿話에 不過한 것으로 인물들 간의 싸움의 과정보다 오히려 意味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요소는 核心的인 主題이기 보다는 敍事를 이끌어 가고 다음의 사건을 導入하기 위한 手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敍事的 結末에서 옥매의 활약으로 인해 김씨의 행위가 報賞을 받지만 옥매의 행위가 국가적인 귀감의 대상이 되는 대신, 김씨의 행위는 별 다른 언급 없이 넘어가는 데서 드러난다.

옥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주인에 대해 忠誠을 행하다가 장시랑을 죽게 하는데, 이것은 明白히 下克上에 해당된다. 橫的인 平等關係보다 縱的인 上下關係를 根本으로 삼는 儒敎的 倫理觀下에서 下克上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上典을 죽이고자 謀議한다는 자체가 重罪에 해당되거나와 그것을 행했다는 것은 더욱 용납될 수 없다.²²⁾ 「黃月仙傳」에서 춘섬

22) 李朝時代의 法律에서 親族間의 殺害에 관한 규정을 보면, 아들이나 손자가 그 부친이나 조부모를 살해했을 경우중 과실에 의한 것일 때는 杖一百에 流三千里의 처벌을 받았고, 陰謀에 의한 것일 때는 그것만으로도 사형을 받았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奴婢가 上典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처벌이 앞서의 경우보다

이 자기 주인의 계모를 죽이고자 했다가 실천하지 못한 것도 당시의 社會的 觀念이 作用했을 것이라는 次元에서 解釋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忠誠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작품 자체의 모순일 뿐 아니라 儒敎的인 基般自體가 이미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역설적으로 證明해 주는 사실이 된다. 옥매는 忠誠을 행한다는 名分下에 그러한 이념의 기반이 되고 있는 上下倫理를 부정하는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오히려 忠이라는 규범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더구나 작품의 내용상에만 문제를 국한시키더라도 黃帝가 장시랑을 지극히 총애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실수에 의한 것이라기는 하나 그를 죽여버린 옥매에게 총비정녀문을 하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金氏烈行錄」은 二元的 世界觀을 排除하여 現實的인 世界를 背景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相應하는 새로운 時代의 價値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傳統的인 價値觀을 確認하고 있다. 또한 그것도 일관성이 없이 論理的으로 모순되며 기괴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金氏烈行錄」의 創作時期考察

「金氏烈行錄」이 1920年代의 舊活字로 出刊되었고 年代, 作者未詳의 작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1911년에 李海朝가 발표한 新小說 「九疑山」과 상당한 부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외의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러한 限界때문에 「金氏烈行錄」의 創作時期는 위의 事項들을 참고하면서 앞서 「金氏烈行錄」의 分析에서 도출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추정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金起東은 이 작품이 獨創的이고 寫實的인 表現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李朝後期의 작품이라 했다.²³⁾ 그가 獨創的이라고 지적한 요소들은 대개 여타의 家庭小說에서 散見되는 요소들을 綜合하여 具體化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獨創性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의 지적처럼, 상당히 後期에 나온 작품임은 分明하겠다. 金明植은 이 작품의 時間的인 背景을 정확히

몇 배나 더 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pp. 175~180 참조.

23) 金起東, 前掲書, p. 617.

알기 어렵다고 하면서 ‘승문고’, ‘안해사’같은 용어 등에 주목하여, 승문고가 조선 태종때 설치되어 연산군때 폐지되었다가 영조 47년에 다시 설치된 사실을 들어 이 작품이 英祖朝 以後에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²⁴⁾

이상과 같이 金起東은 內容을 중심으로 해서 막연하나마 「金氏烈行錄」이 李朝後期の 작품임을 밝혔고, 金明植은 그것이 英祖朝以後 곧 18세기 중엽 이후의 작품임을 밝힘으로써 金起東의 論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時期에 접근했다. 이들 兩者는 좀 더 세심한 작품의 分析에 근거하지 않고 先入觀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좀 더 포괄적인 視野에서 관찰하지 않은 점에 限界가 있다. 用語, 作品의 內容, 新小說과의 關係 등을 複合的으로 고려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시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金氏烈行錄」의 創作時期를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用語를 살펴 보면 말미에 옥매가 黃帝를 만나러 갈 때 ‘京城’이란 말이 나온다. 서울의 옛날 명칭을 보면 高麗末에 漢陽府로 불리워지다가 李朝때에는 漢城府로 바뀌어서 불리워졌는데, 日帝強點이 始作된 1910년부터 京城府로 바뀌어 불리어졌다. 이 같은 공식적인 명칭의 변화 이전에 京城이란 用語를 쓴 경우를 찾을 수 있다. 1898년 3월에 創刊한 「大韓皇城新聞」은 처음에는 「京城新聞」이라 불렸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서 「漢城新報」와 「大同新報」를 합해 1906년에 創刊한 新聞을 「京城日報」라 했다.²⁵⁾ 여기서 ‘京城’이란 명칭은 公式的으로는 日帝強點期부터 쓰였지만, 實際로는 19C 末葉을 前後해서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金氏烈行錄」의 創作時期는 最小限으로 잡아도 19C 末葉 말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작품내적인 사실과도 부합된다.

「金氏烈行錄」은 古典小說이 어떤 形態로든 受容하고 있는 二元的인 世界觀에서 完全히 脫피하여 一元論的인 世界觀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또 古典小說에서 核心的인 機能을 담당하고 있는 中介的인 人物을 排除시킴으로써 形式이나 內容面에서 종래와 다른 樣相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古典小說中 가장 늦은 時期에 創作된 것으로 보이는 樂善齋本 小說 以後의 것으로 볼 수 있다.

「金氏烈行錄」은 新小說이나 新派劇과의 관련을 살펴 보면 또한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인방식이라든가 인물형 등에서 이 작

24) 金明植, 前揭論文, p. 248.

25) 金益達編, 「世界大百科辭典」, 學園社, 1971, 1卷, p. 521, 8卷, pp. 450~451 참조.

품이 探偵小說 내지는 推理小說과 같은 樣相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했거니와 그것이 基楚하고 있는 倫理觀 등 全般的인 測面에서 新派文學, 곧 달리 말해 通俗文學의 側面과 附合한다.

‘…… 신파극이 그와 같은 일본 신파극이나 일본소설을 그대로 하거나 번안 내지 답습했고 또 전통적인 유교윤리의 바탕위에서 재구성했기 때문에 주제 내용이 거의 通俗美와 封建的인 義理人情의 비극으로서 친근대적인 유교모란을 긍정하고 천편일률적인 권선징악의 이조소설과 닮았다. 오히려 사상적인 면에서 고대소설보다 후퇴했고, 또한 저속화되어 기괴하고도 추악한 축첩이라든가 고부간의 갈등 또는 금전을 사이에 둔 한 부모 형제간의 상극 班常의 대립등이 살인과 恩讐로 형성하게 되었힌 가정비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⁶⁾

위 지적은 新派劇에 관한 것이지만 通俗的인 新小說에 그대로 一致하는 대목이다. 新文明 紹介라는 점을 뺀다면 이것은 1910년 이후에 出刊된 通俗의 古典小說과 거의 차이가 없다.

「金氏烈行錄」은 二元的 世界觀과 中介의 人物을 完全히 排除함으로써 다른 계열의 작품에 비해 時期的으로 後代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의 時期에 나온 작품들이 傳統的 價值觀에 반발하면서 새로운 價值觀을 추구함으로써 現實과 一致되는 樣相을 보여 주고 있는 反面에 「金氏烈行錄」은 오히려 前近代的인 倫理觀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고, 그것도 논리상으로 많은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現實과는 괴리된 虛構의 意識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新派文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어서 「金氏烈行錄」이 新派文學이 韓國에 紹介된 다음 創作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 점은 新小說이 등장한 이후 쇠퇴했던 古典小說이 1910년 이후에 다시 新小說과 함께 通俗小說로 變化하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또한 몇몇의 소설들이 論者에 따라서 古典小說 혹은 新小說로 다르게 분류되는 경우가 있고,²⁷⁾ 또 古典小說中에 新小說과 反合된 樣相의 古典小說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을

26)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흥성사, 1982, p. 67.

* 방점 필자.

27) 禹快濟는 「江陵秋月」, 「江上淚」, 「錦襄二山」, 「錦香亭記」, 「明沙十里」, 「牡丹花」(龍媒奇緣), 「百年恨」, 「楊貴妃」 등의 작품이 研究者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는 작품임을 밝혔다. 禹快濟, 前揭論文, pp. 121~131 참조.

보면²⁸⁾ 「金氏烈行錄」이 더욱 古典小說로서는 의심스런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金氏烈行錄」이 最小限 19C末葉쯤에 創作되었을 가능성을 보았거니와, 最大限의 時期는 新派文學이 韓國에 導入된 時期 및 「九疑山」과의 관계, 그리고 李海朝의 創作性向 및 이 작품의 發刊時期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느 정도 具體的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小說에서 新派의 性格이 最初로 導入된 것은 李人植의 新小說인 「鬼의聲」인데²⁹⁾, 이는 그의 最初의 작품인 「血의淚」가 발표된지 2年後인 1908년의 일이다. 그의 경우는 日本에서 이를 직접 배워 왔지만³⁰⁾, 그와 같은 樣相을 보여 주는 新派劇은 韓國에서도 공연한 日本 新派劇團에서 어깨너머로 新派劇을 배운 林聖九가 1911년에 革新團을 創設함으로써 시작되었다. 新小說과 新派劇은 그 樣式上의 差異에도 불구하고 서로 많은 교섭을 가졌다. 이들 創作이나 翻譯物이 나오기 전에 移入狀況을 먼저 고찰하는 것이 중요한데, 新小說에서는 新派의 要素에 관한 한, 별 달리 특기할 만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新派劇의 移入時期만을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日本人들은 韓·日間에 乙巳條約이 체결된 직후부터 韓國에 移住하기 시작했고, 韓日新協約이 맺어진 1907년 이후에는 숫자가 늘어나 明洞에 日人居留部落을 形成했고 자신들을 위한 劇場을 세웠다. 당시, 淸日, 露日 戰爭에 日本이 勝利한 後로 日人들은 더 많이 移住했고 그들을 위안하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日本京阪地方의 2·3流 新派劇團들이 건너 와서 軍事劇, 探偵劇, 家庭悲劇 등을 공연했다.³¹⁾

이상처럼 新派文學은 小說 혹은 演劇中 어느 경우를 봐도 그 導入된 時期가 1908년을 넘지 않는다. 韓國의 新派文學은 日本의 新派文學의 影響 밑에서 成立되었는데, 그 당시에 活動했던 作家들 중 留學經驗이 없었던 사람들도 新派文學을 創作한 例를 볼 수 있다.³²⁾ 「金氏烈行錄」의 작가 역

28) 李能雨는 舊活字로 된 古典小說이 원래 寫本, 木版本을 臺本으로 하는 本格物 이외에도 '新小說'에 反合된 樣相을 보여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 日帝強點期에 지어진 古典小說이 있을 수도 있음을 論했다. 李能雨, 「古代小說 舊活字版本 調査目錄」, 淑明女大論文集, 제 8 집, 1968, (禹快濟, 上揭論文, p. 116, 참조).

29) 崔元植, 前揭論文, p. 146.

30) 權寧珉, 「開化期小說作家의 社會的 性格」, 「韓國學報」, 제 19 집, 1980, 여름, p. 93 참조.

31) 유민영, 前揭書, pp. 36~37 참조.

32) 權寧珉이 조사한 新小說作家들의 經歷을 보면, 日本留學經驗이 全無한 作家들

시 당시 流行하던 潮流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품에 대한 評이나 기타의 記錄 또는 異本이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보아 群小내지 無名の 作家가 아닌가 한다.

「金氏烈行錄」은 「九疑山」과의 內容上의 關係로 보아 어느 한편이 다른 한 편을 模倣한 것이 틀림없는데, 兩者의 先後關係를 確定할 만한 單證적인 要素를 찾기는 어려우므로 그 可能性들만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李海朝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李海朝는 古典小說 내지 新小說 혹은 童話를 改作하거나 模倣해서 新小說로 發表한 경우가 있으며³³⁾ 또 1910년을 고비로 해서 通俗的인 古典小說의 世界로 復歸하기 훨씬 前부터 公安類의 文學에 대해 特別한 觀心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그의 探偵小說에 대한 모색과도 關係를 가지고 있다.³⁴⁾ 이같은 그의 模倣 내지는 改作性向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金氏烈行錄」을 基礎로 해서 「九疑山」으로 變形시켜 發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한다면 「九疑山」이 每日新報에 1911년 6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연재되었다는 점과 韓國文學에 新派的 要素가 1908년쯤부터 導入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金氏烈行錄」은 1908년 이후부터 1911년 전까지의 동안에 創作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역으로 「金氏烈行錄」이 「九疑山」을 模倣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곧 이 작품이 1920年代 活字로 出版되었고, 또 1910년을 지나서 通俗化하기

이 많은데, 그러한 作家들 중에서도 新派文學을 創作한 이가 많음이 드러나, 兩者가 必然的인 關係를 가지는 사실이 못됨을 알 수 있다. 權寧熙, 前揭論文, p. 93 참조.

33) 李海朝의 처녀작인 「芥上苔」는 白話體 漢文小說로 作者未詳의 漢文小說인 「영영전」과 직접적인 關係를 맺고 있고, 「鐵世界」는 줄베르느(Jules Verne)의 소설 「인도왕녀의 오억프랑」(Les Cing Cents Millions de la Béguin, 1879)을 翻譯한 것이며, 「鴛鴦圖」는 傳來童話인 「범인찾아낸 어린 판관」의 內容을 借用한 것이고, 「누구의 죄」는 西洋의 探偵小說을 翻譯한 것이다.(崔元植, 前揭論文, p. 34, 38, 101, 104 참조), 이외에도 그의 작품 「鳳仙花」의 上卷은 李人植의 「雄岳山」의 上卷과 흡사하여 그가 模倣한 것일 가능성이 짙다.(林和, 前揭書, p. 163 참조).

34) 李海朝의 公安에 대한 관심은 각별한 데, 이러한 요소들은 그의 많은 작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는 「雙玉笛」이란 작품을 探偵小說이란 명칭을 붙여 발표했다. 그는 그러한 樣式을 完成해서 이 작품을 창작하기 전에 「鴛鴦圖」에서 「牡丹井」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九疑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품들 속에서 推理的인 要素의 強度를 높여 가면서 그 樣式的 可能性을 實驗하고 있어 그의 公安에 대한 취미가 그것과 밀접한 關係를 가진 것임과, 「九疑山」 역시 새로운 樣式的 작품을 實驗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의 작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작한 古典小說과 新小說이 등장하여 특히 1912년경부터 이들과 新派劇이 대중들에게 대단한 人氣를 끈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 時期에 많은 群小作家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당시 流行하던 傾向에 맞춰 創作하거나, 다른 作家의 작품을 模倣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近代的 著作權에 대한 概念이 희박했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金氏烈行錄」은 19C 末葉 이후 부터 1920年代 末 사이에 創作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을 감안한다면 그 時期는 1900년대 初까지 올려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지금까지 「金氏烈行錄」을 두고 그것이 순수한 古典小說인가를 解明하고자 하여 分析해 보았다. 먼저 II 장에서는 展開構造, 人物, 價值觀으로 나누어서 이를 既存의 類型的 作業과 比較, 檢討하여 特徵的 局面들을 살폈다. 또 이 작품의 「九疑山」과의 관계에 착안, 新小說과의 관계 여부도 함께 검토했다. 다음으로 III 장에서는 II 장의 결과들을 토대로 小說史의 脈絡속에서 검토하여 「金氏烈行錄」의 創作時期를 考察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金氏烈行錄」의 實體가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 앞서 分析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의 특징을 살펴 보았으므로 여기서는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고 그 文學史的 位置를 論하는 데서 그치고자 한다.

첫째, 「金氏烈行錄」은 俗화된 古典小說로서 新派文學에 가까운 樣相을 보여줄 뿐 전혀 獨創的이지도 典型的이지도 않은 작품이다.

둘째, 이 작품에서는 二元的 世界觀의 小說의 특징인 ‘英雄의 一代記’라는 構造的 原型성이 崩壞되고 있었다.

세째, 이 작품은 英祖朝 後期の 小說처럼 強烈한 葛藤은 없으나 敘述時間의 조정에 의해 劇的 構成을 指向하고 있었다.

네째, 人物을 새롭게 創造하고자 했으나 既存의 慣習的 構造를 답습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失敗하고 말았다.

다섯째, 中介的 人物을 消滅시킴으로써 浪漫스적 세계를 벗어나는 것 같으나, 대신 新派的 要素를 導入함으로써 또 다른 通俗的인 俗文學으로 轉

落할 수 있는 樣相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英祖朝 以前과 以後의 小說 및 그들과는 다른 樣相들이 小說史의 展開와 關係없이 混在하고 있는 樣相을 보여준다.

일곱째, 사용된 用語 및 위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最小限 19C 末葉부터 1920年代 末까지의 사이를 創作時期로 잡을 수 있다.

이상 「金氏烈行錄」의 分析에서 드러난 結果를 정리해 보았는데, 이 작품의 文學史的 位置를 밝히는 데 있어 世界觀의 問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二元的 世界觀의 小說은 그 世界觀에 基礎한 神聖性, 非日常性 등이 構造, 人物, 價值觀과 같은 제요소의 움직임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러한 世界觀이 存在하고는 있으나 통제력을 잃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이나 樂善齋本 小說은 그에 맞게 日常性, 世俗性이 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하나의 작품은 그 背景이 된 世界觀을 어떠한 식으로든 反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世界觀은 판소리계 소설의 경우처럼 그 자체의 필연적인 모순으로 인한 갈등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金氏烈行錄」의 경우는 作者의 虛爲意識으로 인해 論理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으며 더구나 形式과 內容面에 있어 커다란 괴리를 빚음으로써 問題가 된다.

「金氏烈行錄」은 앞서 세 類型의 작품들의 속성을 부분적으로는 골고루 갖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어느 작품군과도 一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은 二元的인 世界觀과 中介的 人物을 排除함으로써 앞서의 어떤 類型들보다도 後代의 것임이 드러나지만, 世界觀의 變化와 相應하지 못하고 오히려 退行하는 樣相과 俗文學的 樣相을 強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金氏烈行錄」은 正常的인 小說史의 展開過程을 밟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時期의으로 보아 古典小說이 文學史的 意味를 마감한 다음에 創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질게 풍기는 것이다. 또 이 작품이 新小說의 發生以前에 創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全般的인 樣態를 고려할 때, 世界觀과 人物에 있어서의 變化만을 가지고 이 작품의 文學史的 位置를 긍정적으로 評價하기에는 상당히 無理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 「金氏烈行錄」의 研究를 정리했는데, 본 論議는 다음과 같은 限界를 지닌다.

論理的인 檢證의 必要性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分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관 짓지 못함으로써 論理의 重複을 빚었고, 新派文學과의 관계를

좀 더 具體的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적에만 머물고 만 감이 없지 않다. 또 이 작품처럼 위치가 모호한 일련의 古典小說을 함께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충분히 문제를 규명하지 못하고 단지 문제의 제기에만 그친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점들이 보완될 때 이들 작품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을 것인 바, 이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參考文獻

- 「金氏烈行錄」, (舊活字本 古典小說(Ⅱ)), 東國大 韓國文化研究所, 亞細亞文化社, 1976)
- 李海朝, 「九疑山」, (韓國開化期文學叢書(Ⅰ)), 新小說, 龔安(譯)小說 卷九, 亞細亞文化社, 1978)
- 權寧珉, 「開化期小說作家的 社會的 性格」, 「韓國學報」, 제 19 집, 1980, 여름.
- 金起東, 「韓國古典小說研究」, 教學研究社, 1985.
- 金明植, 「金氏烈行錄」과 「九疑山」, 「韓國文學研究」, 제 8 집, 東國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85.
- 金烈圭外著, 「民談學概論」, 潮閣, 1983.
- 成賢慶,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 禹快濟, 「舊活字本 古小說의 출판 및 연구현황검토」, 한국고전문화연구학회編著, 「古典小說研究의 方向」, 새문사, 1985.
-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흥성사, 1982.
- 李相澤, 「古典小說의 社會와 人間」, 成賢慶外編, 「韓國古典小說研究論文選」(1), 啓明大學校 出版部, 1974.
- 李相澤外編, 「古代小說의 世俗化過程試論」,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사, 1983.
- 李在銑, 「開化期 小說研究의 現況과 方向」, 「韓國學報」, 1977. 봄.
- _____, 「新小說의 敘述構造論試考」, 「震檀學報」, 제 33 호, 震檀學會, 1972.
- _____,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84.
- 林 和, 「概說 朝鮮新文學史」, 韓國文學史研究叢書, 第一 卷, 三文社, 1982.
- 鄭炳旭, 「李朝末期 小說의 類型的 特徵」, 成賢慶外編, 「韓國古典小說研究論文選」(1), 啓明大學校 出版部, 1974.
- 趙東一, 「新小說의 文學史的 性格」,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73.
- 崔元植, 「李海朝文學研究」, 「韓國近代小說史論」, 創作社, 1986.
- A. A. Mendilow, 崔翺主譯, 「時間과 小說」, 大邦出版社, 1983.
- A. Brooker Thro, 「An Approach to Melodramatic Fiction」, 「Genre」, Vol, number

3. Fall, 1978, University of Oklahoma.

A. J. Greimas, 「Structurale Semantic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3.

C. Bremond, 「說話可能性의 論理」, 金炳旭編, 崔翔主譯, 「現代小說의 理論」, 大邦出版社, 1983.

F. Jameson, 윤지관 역, 「언어의 감옥」, 까치, 1985.

韓逸燮, 「시간관계에서 본 소설의 구조」, 「독일문학」, 22집, 1979.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金益達編, 「世界大百科辭典」, 1권, 8권, 學園社, 1971.